

빅데이터 동향

2021.01.28

㈜쓰리웨이소프트 최미화





데이터 시장 및 거래소 공공 빅데이터 (클라우드, AI ...) 전력 빅데이터 (클라우드, Al ...)



- 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
- 2019 데이터· AI 경제 활성화 계획
- 2020 한국판 뉴딜

• AI기반 사회 안전망 구축 솔루션

- HUB-PoP 클라우드 서비스
- 전력빅데이터 공유플랫폼 (EN-TE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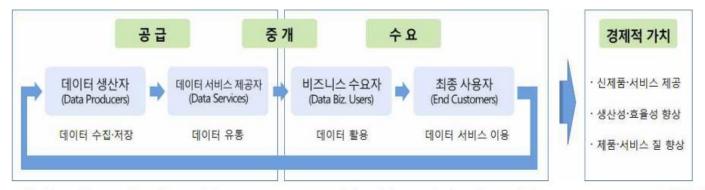
• 오픈랩



데이터 경제 활성화, 데이터 거래 시장을 주목하라

- 데이터
 - 21세기 원유로 비유
 - 데이터가 사람,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자원으로 평가됨
- Data Economy
 - 데이터 산업과 이를 둘러싼 데이터 생태계
 - 데이터 생태계 Value Chain: 데이터 공급-중개-수요

< 데이터 경제의 가치창출 체계 >



※ 출처: Enter the Data Economy('17, EC), The Rise of the Data Economy('16, IBM) 재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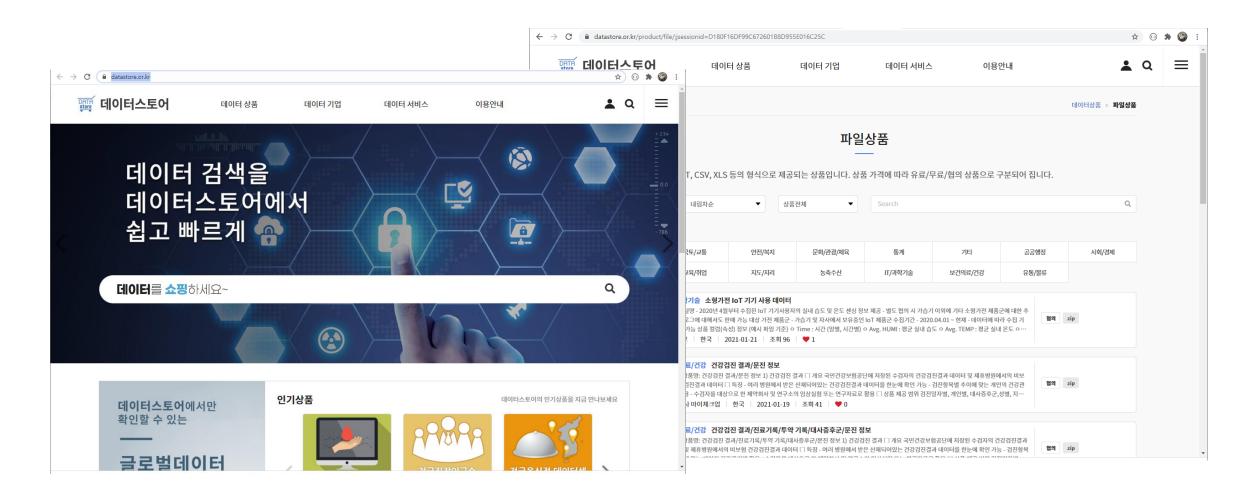
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

- 2018년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규모: 3,253억 규모
 - 주로 데이터 중개·판매와 데이터 신디케이션 사업 기업 매출
-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분석 제공 시장 포괄 시 : 7,576억 규모
 - 데이터 거래 자체 외, 데이터 가공 · 분석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가 상당 비중을 자치함
- 데이터 거래
 - 플랫폼을 통한 거래
 - 민간 : SK텔레콤 OPEN AOI 포털/빅데이터 허브 LGCNS 오디피아, KTH API 스토어...
 - 공공 : **공공데이터 포털**, 데이터 스토어 (공공,민간 데이터 중개, 거래 지원)
 - 개별 거래

	_	_				_		_	_	_	_	_
구분	2014년		2015년		2016년		2017년		2018년(E)			CAGR
	규모	비중	규모	비중	규모	비중	규모	비중	규모	비중	중감를	15~18
데이터 거리	2,019	3.5%	2,379	3.796	2,594	3.996	2,918	4.396	3,253	4.5%	11.5%	11.09
데이터 분석 제공	51,985	90.7%	58,171	90.7%	59,854	90.7%	61,570	90.3%	64,474	89.5%	4.7%	3.5%
정보 제공	3,325	5.8%	3,601	5.6%	3,529	5.3%	3,690	5.496	4,323	6.096	17.1%	6.3%

출처: http://sti.kostat.go.kr/window/2019b/main/2019_win_01.html

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– 데이터스토어 (https://www.datastore.or.kr/)



데이터 거래 성립을 위한 거래기반 마련 필요

-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
 - 여전히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(44%),
 -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 산정 (37.4%),
 - 데이터 유통 채널 부족(37.4%),
 -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(30.8%),
 - 데이터 품질 문제(23.1%)
- 따라서 데이터 수급·활용 촉진을 위해서는
 - 데이터 거래 시장 정착이 필수적
 - 해외 주요국은 데이터 거래·유통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
 - 국내에서도 안전한 거래 촉진을 위해 데이터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 중
 - 현재 구상중인 데이터 거래 기반은
 -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를 수집·가공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데이터를 거래하며
 - 동시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**데이터의 품질·표준 관리**, **가격산정, 법률검토**, **암호화 기술 지원** 등의 거래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**통합 거래 기반 체계**

출처: http://sti.kostat.go.kr/window/2019b/main/2019_win_01.html

공공 빅데이터 ...

2018_국가_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(최종).pdf (첨부파일 참조)

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 '18.6.26(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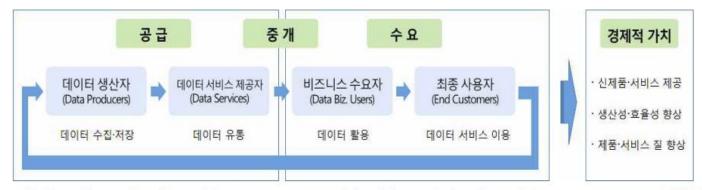
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

- I-KOREA 4.□ 데이터 분야 계획, I-DATA -

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(일부 발췌)

- 추진배경
 - 데이터는 4차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동인
 -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은 국가·기업의 혁신성장 수단
 -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산업육성 정책 필요
- [참고] 데이터 경제 (Data Economy)
 - 2011년 David Newman이 쓴 Gartner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
 - 데이터 생태계의 가치사슬인 공급-중개-수요 시장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체계

< 데이터 경제의 가치창출 체계 >



※ 출처: Enter the Data Economy('17, EC), The Rise of the Data Economy('16, IBM) 재구성

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(일부 발췌)

- 그간 정책의 한계
 -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데이터 이용제도, 양질의 데이터 부족, 취약한 산업기술기반 등이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로 작용
 -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대전환 시급
- 추진 전략

<u>[전략 1] 데이터</u>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

○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▲ 정보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통제·활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, ▲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전방위 지원
 (법제화·안심존 구축·신기술 적용·EU GDPR대응) 추진

[전략 3]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

◇ 빅데이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성장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
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융합, 분석 전문인력 양성, 컴퓨팅파워기반
 기업성장 인프라 지원 등을 아우르는 역동적 산업 생태계 조성

[전략 2] 데이터 가치사슬 全주기 혁신

✓ 데이터 구축·개방(4차 산업혁명 핵심데이터 등, ~22) → 저장·유통(데이터 거래의 비즈니스화, '18~) → 분석·활용(산업·사회 혁신 활용, '18~) 등 全과정에 걸쳐 실제데이터 기반 영역별(의료·교통 등)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

- 대응체계

4차산업혁명 위원회, 과기정통부, 행전안전부, 관계부처,공공기관

2018_국가_데이터 AI 경제 활성화 계획.pdf (첨부파일 참조)

- 혁신성장 전략투자 - 데이터·AI경제 활성화 계획 ('19~'23년)

2019. 1. 16.

• 추진배경

- 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
 양질의 데이터 시장 형성,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확보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음.
- 우리나라 데이터 가치사슬(구축·유통·활용)내 시장 형성이 미진, 선진국과 인공지능 기술수준 격차도 커서 데이터, 인공지능 분야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

• 주요내용

-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
-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
-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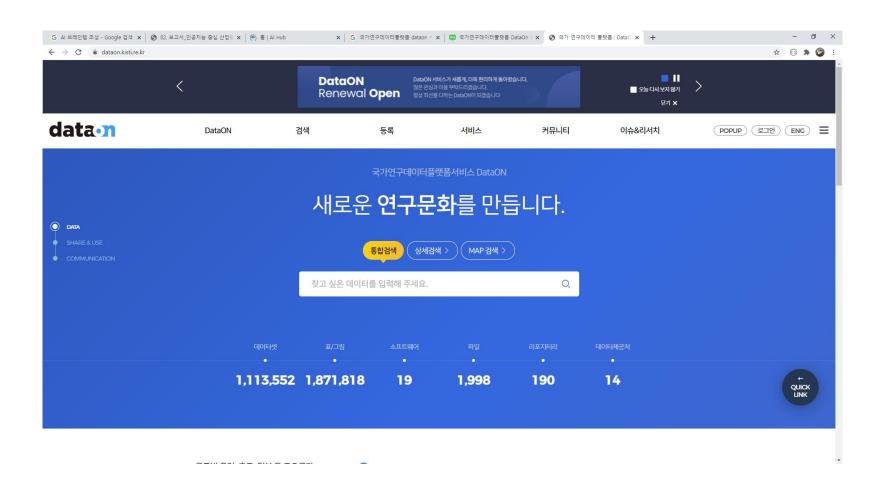
• [비전]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



-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
 -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 및 개발 확대
 - 양질의 데이터 축적 및 개방확대
 - 빅데이터 플랫폼 (10개 예정), 센터 (100개 예정) 구축
 - 각 플랫폼 및 센터간 연계, 고도화를 추진, 전체 플랫폼 통합 연계
 -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체계 구축
 -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(KISTI주축) 구축
 - 공공데이터 개발 및 효율적 관리
 - 공공데이터 전수조사, 국가중점 데이터 지정 및 개발
 -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
 - 양질의 데이터 유통기반 구축
 - 개인, 기업, 사회 데이터 활용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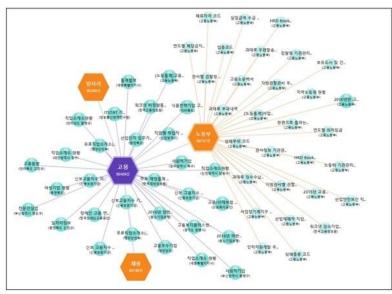
세부과제		'19	'20	'21	'22	'23	
빅데이터센터(100개)·		센터·플랫폼	센터·플랫폼		플랫 폼간	전체 플랫폼	
플랫폼(10개) 구축		구축	연 계	인프라 고도화	연계・고도화	통합연계	
연구데이	터 공유활용	플랫 폼	·구축 및 연계체.	계구축	플랫폼 고도화		
공공	데이터개방	맵구축/80개 중점	96개	112개	128개	144개	
데이터	플랫폼구축	범정부 데이터	플랫폼 구축		고도화		

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(DataOn) - https://dataon.kisti.re.kr/



범정부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– 공공데이터포털 (data.go.kr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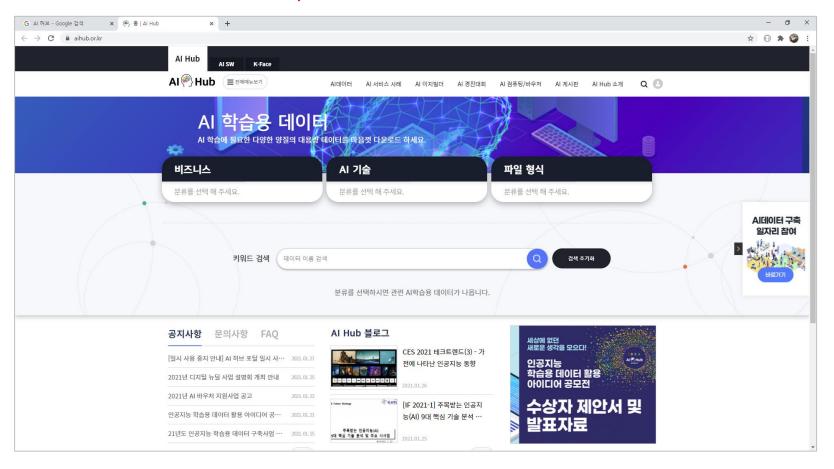


2019 데이터· AI 경제 활성화 계획 (일부 발췌)

-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
 - AI 허브 구축 (데이터셋, 알고리즘, 컴퓨팅파워의 원스톱지원)
 - AI 기술력 제고 (차세대 AI 핵심기술 확보, R&D 챌린지 확대)
 - AI 활용 생태계 조성 (인공지능 브레인랩 조성, 전문인력 육성)
 - 권역별 AI 융합연구센서 지정 운영 (`19년 2개소 → 22년 5개소로 확대)

AI 허브

https://www.aihub.or.kr/



http://www.knewdeal.go.kr/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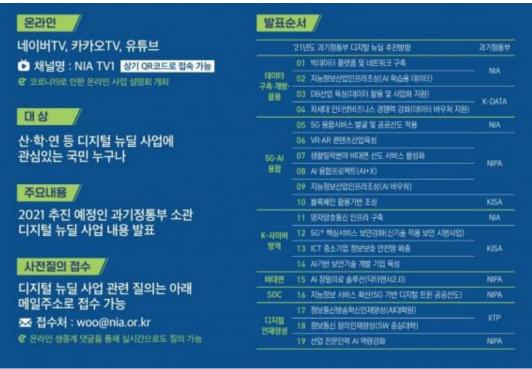
• 10대 대표 과제





• 2021년도 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 통합 사업설명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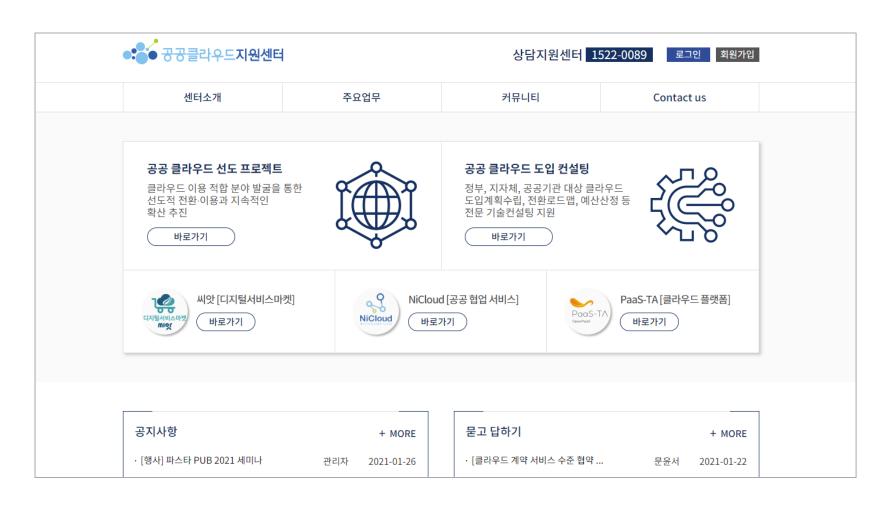


2019년

-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 곳은 40%
- 정보는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된 만큼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을 확대, 지원 정책 예정
- NIA에 따르면
 - 467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40%에 달하는 187개 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
 - 공공기관 135개(39.9%), 지방공기업 52개(40.3%)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중
-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으로 더 확대될 전망
-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준하는 처리를 가하면 민감정보처리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시스템까지 민간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게 됨
- 또 이용 가능 민간 클라우드는 보안인증을 받은 인프라형 소프트웨어(laaS)와 SaaS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간편등급 보안 인증된 SaaS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.
- 각급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보안인증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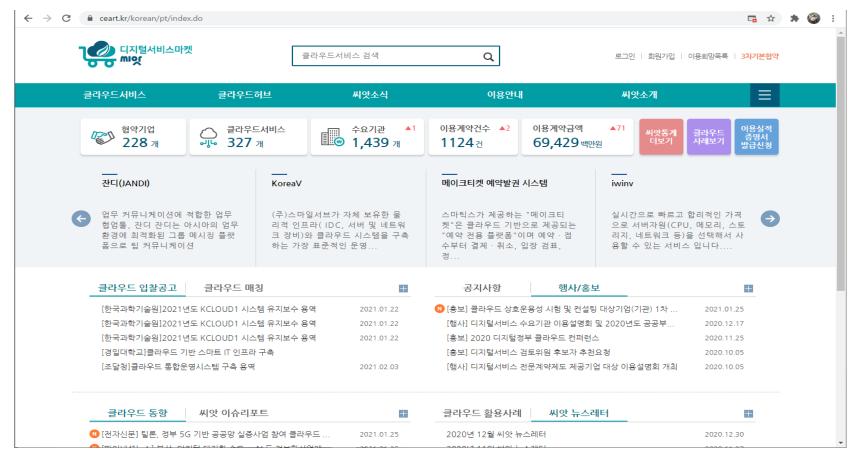
- 클라우드 도입이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고도화된 기술 구현이라는 측면이 강해졌다고 진단
- "단순히 클라우드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. **클라우드를 통해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것인지가 중요**하다"
-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사례 '클라우드 기반 AI 보건소'
 - 서울 은평구 보건소는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영상을 분석하는 'AI 영상분석 서비스'를 도입
 - 식약청 인증을 획득한 AI 기술로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폐질환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
 - 해당 기술은 엑스레이 영상을 97%의 정확도로, 20초 만에 분석한 것으로 알려짐
 - 영상판독에 24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혁신적으로 줄였다.
 - 은평구 보건소에서 성과를 거둔 이 서비스는 전국 보건소로 확산할 계획이다.
 - 클라우드로 구축돼 별도의 장비 없이 1~2주 내에 도입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로 이용할 수 있다.
 - 특히 전국 254개 보건소 소속의 영상의학 전문의가 10여명에 불과해 비전문의가 영상판독을 해야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야 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.

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 (https://cpcp.ceart.kr/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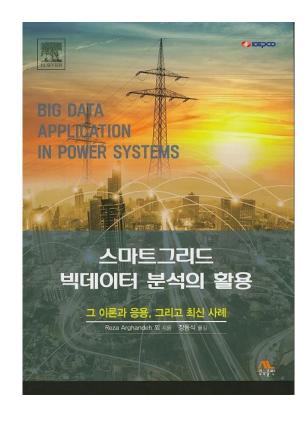


디지털 서비스 마켓, 씨앗 - https://www.ceart.kr/korean/pt/index.do

공공/민간 이용자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기 위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'16년부터 구축·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문 마켓



한전 빅데이터 ...



• 제3부 빅데이터의 힘을 스마트그리드에 활용하기

- ① 데이터 기반 수요반응
- ② 방사형 그리드의 토폴로지 학습
- ③ 분산 통계 검정을 통한 토폴로지 식별
- ④ 지도 학습을 통한 고장점 탐지
- ⑤ 배전 망의 전압 불균형 분석
- ⑥ 포괄적 상태 추정을 위한 예측 분석
- ⑦ 에너지 세분화 분석의 방법 및 적용
- ⑧ 에너지 세분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

전력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전망pdf (첨부파일 참조)

전력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전망



- 해외 전력 빅데이터 활용 현황
 - 초기 전력사용량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로 진화
 - 풍력,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설치,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빅데이터 활용
 - 고장예방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음

- 영국 Centrica사 에너지 절감서비스 (1/2)
 - 영국 최대 전기 및 가스 회사
 - 데이터 수집
 - 2012년까지 약 350만대의 스마트미터 설치
 - 스마트 미터를 통해 30분 단위 에너지 소비량 수집
 - 연간 1.2 TB 빅데이터 축적, 관리
 - 스마트미터 데이터를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처리
 - 메모리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 분석
 - 에너지 소비량을 근거로
 - 에너지 소비 패턴 요약
 - 피크시간대의 실시간 전력수요동향 분석
 - 시간대와 전력수요에 따라 동적으로 변하는 전기요금 설계
 - 전기요금 설계에 근거한 전력수요 관리 및 사용 시간대 분산 등에 활용

- 영국 Centrica사 에너지 절감서비스 (2/2)
 - 데이터를 기반으로
 - 소비자의 그룹화
 - 요금 메뉴 개발
 - 수집한 데이터의 타당성 확인
 - 미래 소비 동향 예측
 - 소비자는
 - 가정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전기 및 가스 소비량, 요금 확인
 - 시간별, 날짜별, 월별 전기 및 가스 소비량 확인
 - 전년도 같은 달의 소비량과 비교 분석 가능
 -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는 연간 최대 190파운드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

- 미국의 OPower사
 - 날씨, 전력소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
 - Facebook과 Honywell의 소프트웨어와 연계하여 Social Digital Alert 기능 추가
 - 고객당 평균 1.5% ~ 3.5%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

• Vestas사

- 슈퍼컴퓨터와 빅데이터 모델링 솔루션을 이용, 풍력 터빈의 최적 설계 위치 선정
- 발전량의 최대화와 전력비용 절감을 실현함.
- Wind Library
 - 세계 각 지역의 기상 시스템 데이터 + 기존 터빈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 조합
 - 데이터량: 2.8페타바이트
 - 데이터종류: 기온, 기압, 습도, 강수량, 풍향, 풍속, 기존 터빈 운영 데이터
 - 분석 내용
 - 풍력발전단지 부지선정
 - 출력 예측
 - 터빈 유지보수 일정 수집
 - 동력장치의 관리 및 배치
 - 발전량, 설치 전 투자수익률 분석

• Vestas사

- 슈퍼컴퓨터와 빅데이터 모델링 솔루션을 이용, 풍력 터빈의 최적 설계 위치 선정
- 발전량의 최대화와 전력비용 절감을 실현함.
- Wind Library
 - 세계 각 지역의 기상 시스템 데이터 + 기존 터빈으로부터 취득한 데이터 조합
 - 데이터량: 2.8페타바이트
 - 데이터종류: 기온, 기압, 습도, 강수량, 풍향, 풍속, 기존 터빈 운영 데이터
 - 분석 내용
 - 풍력발전단지 부지선정
 - 출력 예측
 - 터빈 유지보수 일정 수집
 - 동력장치의 관리 및 배치
 - 발전량, 설치 전 투자수익률 분석

- 일본 NEC사
 -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전소 고장감시 사례
 - 발전소 등 대규모 플랜트에서 고장 징후를 분석해 고장에 이르기 전 설비의 불건전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
 고장 전조 감시 시스템
 - 가동 중인 설비나 장치 등의 고장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예측
 - NEC사 보다 정밀한 고장 징후 예측 시스템을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개발함
 - 개발 시스템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장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변형 분석 기술이 적용됨
 - 먼저 플랜트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로 부터 정보를 수집
 - 대량의 센서 데이터 중에서 패턴이나 규칙성 등 보편적인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
 - 데이터를 건전한 상태로 정의한 후 그 모델과 상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서 고장이 발생하기 전의 불건전한 상 태를 고장의 징루로 신삭하게 검출

- 덴마크 Dong Energy
 - 빅데이터를 활용한 배전선로 유지보수
 - 배전선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정전을 최소화하기 위해
 - 선로의 사용연한에 따른 주기적인 교체 대신
 - 선로의 부하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불필요한 교체비용을 줄이는데 노력
 - 전기품질을 고려하고 정전을 최소화하면서도 유지보수 비용 또한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
 - 대량의 운영 데이터와 통계적 부하 패턴을 분석하여 정확한 부하를 예측
 - 이를 기반한 계통 운영 최적화와 비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 - 먼저
 - 이력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용가의 최대부하를 계산
 - 그에 따른 배전선로의 부하 계산
 - 배전선로에 일정 간격으로 센서를 설치하여 전기 품질 및 부하를 측정
 - 이를 예측 기준점으로 하여 예측정확도를 높임
 - 이력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부하를 계산해 부하예측의 정확도를 높임

- 국내 전력 빅데이터의 활용 현황
 - 스마트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
 - 스마트미터로부터 생성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소비자의 전기소비 패턴을 분석한 후
 -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예측
 - 유사 업종 및 규모와 비교정보를 제공하여
 -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기소비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서비스

[표 1]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개요

활용 데이터		에너지 컨설팅	\Rightarrow	자발적 수요관리 유도
스마트미터 데이터(소비량) + 영업정보(판매량, 요금) + 기상정보(날씨, 온습도)		소비자별 소비패턴 분석		(국민) 전기 과소비 예방
	\Rightarrow	전기요금 예측(실시간)		(한전) 수요관리 비용절감
		유사 업종(규모)과 비교		(정부) 에너지 수급안정

전력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전망, 2014 (일부 발췌)

- 국내 전력 빅데이터의 활용 현황
 - SNS 분석을 통한 리스트(Risk) 실시간 예보 서비스
 -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공급을 둘러싼 Risk(정전, 재난, 설비고장 등)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추세
 -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SNS 데이터와 한전에서 보유하는 민원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
 - 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게 해주는 서비스

[표 2] Risk 실시간 예보 서비스 개요

활용 데이터	⇒	Risk 실시간 예보	\Rightarrow	Risk 선제적 대응
고객 민원정보		전력공급관련 정보수집/분석		(국민) 고객만족 · 편익증진
SNS(트위터, 페이스북)		감성추출/사회연결망 분석		(한전) 합리적 의사결정
언론보도, 인터넷 등		추이예측/Risk 사전예보		(정부) 공공서비스 품질향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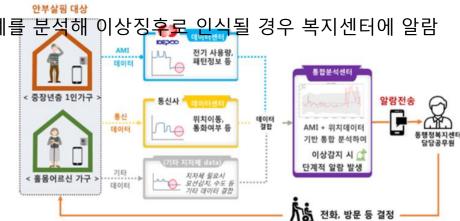
- 전망
 - 초기 단계 : 스마트미터를 활용한 서비스에 집중
 - 향후 수요예측, 설비 유지보수 및 고장 예방, 전력망 운영ㆍ계획 등 점차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정부의 3.0 데이터 개발 정책으로 인해 공공 및 타 산업 데이터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 발굴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

https://www.aitime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557 (기사 발췌)

- 한전 Private Cloud 서비스인 허브팝(HUB-PoP)이 NIPA 주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, 성능 검증을 통과
- 사내 직원에게
 - HUB-PoP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,
 - 연구개발, 업무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며
 - 전력빅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분석 프로젝트 AI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개발, 업무지능화 등 사내 모든 업무에 활용 확산

https://www.energydail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2832 (기사 발췌)

- 전력 빅데이터, AI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솔루션 개발 계획
 - 자체 보유한 260여개 전력시스템에서 매년 3조3000억건이 넘는 거대한 전력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음
 - 전력빅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대국민 솔루션 개발 중
 - 솔루션
 - 우선, 전력사용량과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 사용량과 위치 관계를 분석해 이상징후로 인식될 경우 복지센터에 알람을 제공하는 1인가구 안부살핌 솔루션
 - 전력사용량과 유동인구, 범죄율 등의 공공데이터를
 융합·분석해 취약지역 도출, 최적의 방범 CCTV 설치 위치 선정하는
 CCTV 최적입지 선정 솔루션을 실증하고 있음
 - 고객 소유 전기설비의 품질정보를 고장 발생 전에 알려주는
 파워체크 모바일 서비스



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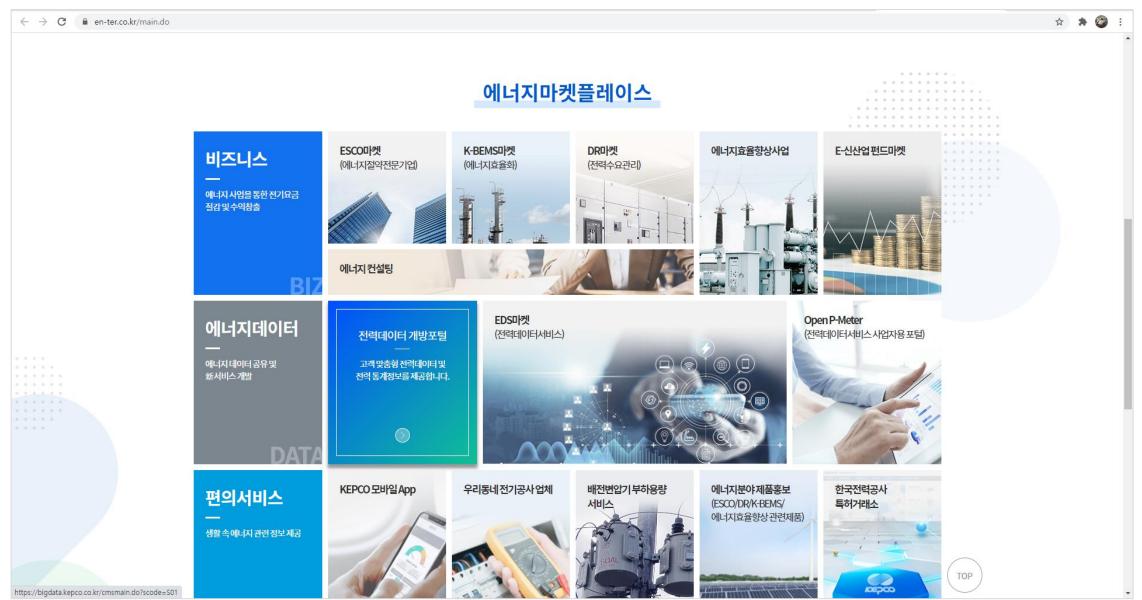
http://www.koenerg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6299 (기사발췌)

- 한전에서 제공받은 전력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에너지 사업모델을 거래 중개해주는 플랫폼이다.
- 에너지 효율 개선, 전력수요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준다.
- 이곳에서 분석해 내놓는 핵심 데이터는 전력계량 데이터다.
-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와 융합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
- 실제로 전력계량 데이터를 분석하면 독거노인의 활동 여부 확인, 전기료 절약 안내 등을 할 수 있다.
- 실제로 통신사들도 콘센트에 사물인터넷 기기를 연결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이용하면 기기 연결 없이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- 건물 전력사용량을 분석해 상점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도 있다.
- 광주광역시는 전력 빅데이터와 범죄율 통계를 활용한 CCTV 위치 선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.
- 전력사용량을 예측해 누진 구간을 피하는 등 가정 전기료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.

201909_전력데이터 공유 플랫폼 설명자료.pdf (첨부파일 참조)



전력빅데이터 공유플랫폼-에너지마켓플레이스 (EN-TER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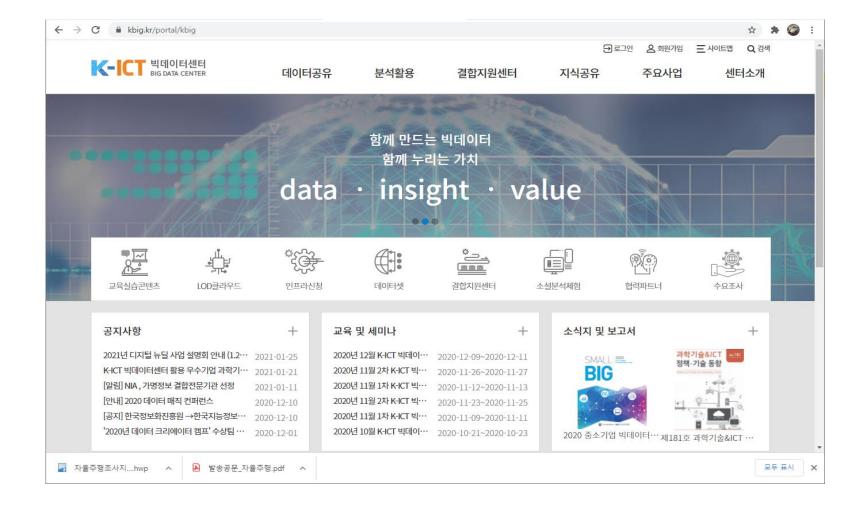
그 외 동향...

오픈랩 - KT 빅데이터 오픈랩

- KT가 서울 서초구 연구개발센터에 개인과 기업 누구나 자유롭게 빅데이터를 이용·활용할 수 있는 '통신 빅데이터 오픈 랩'을 개소
- '통신 빅데이터 오픈 랩'은 개인과 기업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
- 빅데이터 플랫폼은 유동인구, 소비, 상권,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음
-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분석 리포트, 컨설팅 등도 제공
- '통신 빅데이터 오픈 랩'은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데이터를 연구, 분석할 수 있는 무료 오프라인 공간
- 사용자는 '데이터 안심구역' 내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
- 사용자들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진행
- 특히 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가의 자문 및 비즈니스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
- 이외에도 그래픽처리장치(GPU) 기반의 고성능 분석 서버를 통해 AI 추론 및 예측 분석 기능을 제공

출처: 시장경제(http://www.meconomynews.com)

- K-ICT 빅데이터 센터
 -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(서버, 솔루션 등)를 보유하기 어려운 스타트업, 예비창업자, 대학(원), 연구소 등에 Shared Service 및 실습 환경을 제공



•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오픈랩



정리

- 데이터 생태계가 정착되고 있음
- 빅데이터 , 클라우드 서비스, AI 관련
 현재 수십 ~ 수배에 이르는 플랫폼과 센터가 생성되고 있음 → 23년도 전체 플랫폼 통합 연계될 것임
- 양질의 데이터 유통 기반 마련과 결합된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혁신 → 가장 큰 흐름으로 보임

